metro
메트로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제3208호 www.metroseoul.co.kr



거문도 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 1905년 4월 12일 세워진 뒤 100년 동안 남해안의 뱃길을 밝혀왔다. 거문도의 '거문(巨文)'은 학문에 뛰어난 문장가들이 이곳에 많은 것을 보고 구한말 중국 제독 정여창의 권유로 지어진 이름이다.

# 거문도… 상생의 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끝자락 전남 여수시 거문도가 자랑하는 3대 특산물. 왼쪽부터 쑥, 쥐치, 갈치.

5월 가정의 달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1일을 기점으로 5월 5일까지 무려 5일이나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황금연휴가 아닐까? 기회는 누리는 자의 몫이다. 그동안 바쁜 회사업무로 가정에 소홀했다면 이번에야말로 가장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차례다.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거문도 힐링여행을 소개한다. 준비물은 필요없다. 오직 거문도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담아 올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에티켓과 쓰레기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거문도 주민이 여러움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하면 된다. 천혜수도의 백미임을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를 제대로 즐기려면 배를 타고 거문도와 백도를 둘러본 후 시간을 내서 거문도 트레킹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내려가면 5시간 후에는 여수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한다. 터미널에서 곧장 유람선을 타고 백도로 향한다. 거문도까지 가서 백도를 보지 못했다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문도 절경의 절반 이상이 백도에 있기 때문이다. 백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호와 등대섬, 삼선암, 병풍바위, 서부띠 바위, 궁전바위, 서방바위, 왕관바위 등이다. 백도관광을 마치고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고도와 서도를 잇는 삼호교를 건너 서도로 이동한다. 이제부터는 거문도 트레킹을 시작한다. 청정지역 거문도 인근에서 갓잡은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갈치조림으로 맛있게 아침을 먹고 거문도여행을 시작한다.

트레킹은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서 서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도마을 선착장에 도착하면 섬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무인등대인 녹산등대로 향한다. 거문초등학교 서도분교까지 약 1km. 여기서 다시 녹산등대까지 약 1km거리다. 잘 다듬어진 탐방로를 따라 가자 거문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정에 녹문정(鹿門亭)이란 전망대가 있다. 녹문정에서 600여 m를 지나면 인어상이 인상적인 인어해양공원이 반긴다. 그리고 녹산등대 들어오는 길 해변에 서도(이금포) 해수욕장이 있다. 백사장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수심이 완만하고 물이 맑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거문도여객선터미널로 들어온 후 여객선터미널 뒤 편으로 향한 길을 따라 거문도역사공원을 산책한다.

그 때 섬에서 보는 일몰은 특별한 볼거리다. 빨갛게 타오르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다.

/최치선기자 chapunni@metroseoul.co.kr

▶ 가정의 달 특집 p/2~6

# 롯데월드 어드벤처 "어린이날은 마술"

보고 듣고 배우는 마술 체험 5월 한달 '판타지 매직 타임'

크루즈 타고 거리 행진 등 고객 참여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 자유이용권 할인 등 카드·통신사 연계 특전 다양

**◆매일 매일 펼쳐지는 마술쇼**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5월 한 달간 매일매일 어린이 날이라는 콘셉트로 '판타지 매직 타임' 스페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마술'을 키워드로 보고 듣고 직접 배우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어린이 날에는 물론 5월 내내 매일 펼쳐진다.

5일 어린이 날 당일에는 믿음이 마음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이정용이 출연하는 '어린이 만만세' 공연을 한다. 착시마술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술 공연과 더불어 스피드 퀴즈, 가족 댄스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5월 한 달간 매일 오후에는 카드 마술, 동전 마술, 심리 마술 등 '스트리트 매직 퍼포먼스'가 파크 곳곳에서 펼쳐진다.

2~5일 4일 간 진행되는 신개념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변신 마법사'에서는 어느 누구나 마법사가 되어 주문을 외우면 150인치 초대형 LED 화면에서 화려한 불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 효과가 펼쳐진다.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의 무대**

꼭 어린이 날이 아니더라도 5월 한 달간 매일매일이 어린이 날이다.

우선 세계적인 마술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은결이 국내 최고 마술사들과 프로듀싱한 '탑 인 이스케이프의 '펀 매직 콘서트'가 2일, 16일, 23일 오후 6시에 공연된다. 코미디, 댄스 랩 등 다양한 요소가 결집된 화려한 무대다. 또한 음악이 함께 하는 마술 '판타지 매직 인 롯데월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공연된다.

9일 오후 7시 30분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 스테이지에서는 이은결의 초대형 마술 공연 '퍼스트 매직 콘서트'가 마련된다. 이은결이 직접 스토리가 있는 마술을 선보인다. 이국적인 건물과 로맨틱한 야간 조명이 어우러지는 테마파크와 마술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퍼레이드 주인공 기회**

1일부터 어린이 날 당일까지는 고객 참여 프로그램 '스페셜 패밀리'가 진행된다. 퍼레이드 주인공이 되어 풍선으로 장식된 트램과 크루즈 차량을 타고 어드벤처를 한 바퀴 돌며 신나는 거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가면을 쓴 100여 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판타지 마스크 퍼레이드'에서도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트 풍선과 '로티 로리'가 그려진 뱃지를 선물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뮤지컬 쇼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의 신나는 서브 퍼레이드 '판 판 앨리스' 등 향긋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공연들이 매일 이어진다.

**◆ 환상의 숲 무료 이용**

롯데월드는 어린이 날을 맞이 파크 입장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생태체험관 '환상의 숲' 무료 이용 이벤트를 1일부터 5일까지 마련한다. 특히 레오파드 육지 거북, 곤충 전시관을 선보여 보다 더 풍성한 콘텐츠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할인 혜택도 마련한다. 1~10일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이용권을 40% 우대해주고 귀여운 '로티' '로리'가 그려진 스티커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5월 한 달간 실적과 상관없이 신한·우리카드 회원은 본인 자유이용권은 1만 5000원에 구입하고, 동반 3인은 4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7일까지 SK텔레콤 T 멤버십 회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에 대한 포인트는 40%만 차감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미리 티켓을 예약하면 매표소의 긴 줄을 피할 수 있다. 정문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는 남문 '매직 아일랜드 게이트', '와일드 투어 게이트'를 통해 입장하면 보다 여유롭게 나들이를 시작할 수 있다. 인기 놀이기구 10종에 마련된 어트랙션 예약 시스템 '매직 패스'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도 줄일 수도 있다.

오전 일찍 영유아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는 가족이라면 어드벤처 1층 '키디 존'을,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지프차, 비행기, 보트를 타고 모험을 즐기는 지하 1층 신규 어트랙션 존 '와일드 투어'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 좋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의 유산을 즐기고 아이들의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테마파크를 올려다보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로맨틱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중간에 코스로 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표전화 1661-2000

/[illegible] [illegible]@metroseoul.co.kr

# 12m 대형 피카츄… 百, 어린이 캐릭터로 무장

/[illegible]

## '포켓몬 스프링 카니발' '유 아 마이 히어로' 등

백화점 업계가 가정의 달 특수잡기에 분주하다. 올해 5월 초에는 하루 휴가만 사용하면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백화점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 고객을 잡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는 5월 5일까지 인기 캐릭터 '포켓몬스터'를 활용한 '포켓몬 스프링 카니발' 행사를 연다. 메인 입구인 1층 정문 앞에는 국내 최초로 12m 크기의 대형 피카츄 아트벌룬을 전시한다. 매장 곳곳에는 피카츄, 리자몽 등 인기 캐릭터 아트벌룬을 전시해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본점·잠실점·영등포점 등 15개 점포에서는 5월 1~5일 '인기 로봇 완구 박람회'를 열고 또봇·헬로카봇, 터닝메카드 등 인기완구 2만여 개를 선보인다. 특히 본점에서는 5월 1일 하루 동안 지난해 품귀현상을 보인 와쉬레인저와 요괴워치·헬로카봇 펜타스톰·레고 등 인기 완구류를 1000개 한정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5월 1~10일 '유아 마이 히어로(You are My Hero)'를 주제로 가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신촌점에서는 유플렉스 12층에서 '원더랜드 인 신촌' 행사를 통해 레고와 피규어(모형) 등을 선시한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2m)과 캡틴아메리카(2m), 스파이더맨(2.5m)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레고 전시품인 '파리 명품거리'(3m*4m)도 볼 수 있다.

압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 등 8개 점포에서는 여성고객을 위해 란제리와 배드주스 4회 이용권, 꽃배달 2회 이용권을 합한 '스마일 어게인 패키지'도 선보인다. 이밖에 행사기간 각 점포에서는 브랜드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을 제외한 4개점(수원점·센터시티·타임월드·진주점)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비밀번호를 맞추면 병문이 열립니다' 행사를 연다. 갤러리아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도어록 비밀번호 2개를 입력해 맞추면 지점별 선착순 5명에게 LG 포켓포토 1대와 인화지 30매를 준다.

/정은미기자 21land un@metroseoul.co.kr

##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최대 90% 할인

쇼핑 지출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옥션에서는 5월3일까지 '어린이날 선물대전'을 열고 '마이크 오디션 놀이 왁' '우주만 역할놀이 세트' 등 장난감과 육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상품을 판매한다. 또 '가정의달 선물 특집' 에서는 레저용품과 건강식품 등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매일 다른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G마켓에서는 마텔과 제휴를 맺고 어벤저스2 히어로테크 시리즈 '헐크버스터' 와 '아이언맨 장갑'을 각각 6만4900원, 3만9900원에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카네이션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프로모션에서는 카네이션, 카네이션 비누 꽃, 식갈비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한다.

11번가도 같은 기간 담당MD들이 추천하는 '선물대전 포 키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어벤져스2 무비 액션 세트' 와 남아들에게 인기 있는 '또봇 상품 모음전' 등이 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한데 모은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소셜커머스기업 티몬은 5월 15일까지 '맥포머스, 유아용 교구와 명품 완구 브랜드 스텝2, 에어브스 유모차, 월튼키즈 아동복, 몽드드 물티슈, 빅클라렌 유모차 등 3000여 가지 제품들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쿠팡은 2일까지 '어린이날 선물 기획전'에서 '또봇 시리즈',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시크릿쥬쥬' 등 1만여 가지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은미기자

## "5월의 가족사랑, 정관장과 함께하세요"

KGC인삼공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매혜택과 감성캠페인이 함께하는 '5월 사랑이 보입니다' 행사를 준비했다.

5월 15일까지 '5월 사랑이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프로모션 기간 중 인삼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이벤트를 통해 사랑의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정관장 매장에서 제은을 인식하는 사랑의 카드를 가족이나 스승님에게 제품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가정의달의 의미를 더했다.

또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에 선물용으로 적합한 '같은 정을 다누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다', '존경의 마음을 드리다' 등 기획세트 3종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정의 달 선물로 정관장 홍삼이 인기가 높다"며 "특히 미세먼지 증가와 환절기인 요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선물로 좋은 평을 듣고 있어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

# '웰빙수'로 건강한 여름을

### 엔제리너스 '유자몽' 등 몸에 좋은 신제품 선봬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식음료 업계에서는 빙수를 한달 여 빠르게 출시했다.

커피전문점에서부터 페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카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팥빙수와 상큼한 과일 등 이색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빙수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순수 콩 빙수', '수정과 빙수', '유자몽 빙수', '피지망고 빙수', '홍시 빙수' 5종을 선보였다. 다양한 토핑으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풍성하고 다양한 과일을 가미해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20~30대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수 콩 빙수'는 산뜻한 밭 시럽과 팥, 콩가루가 잘 어우러진 담백한 제품이다. '수정과 빙수'는 진한 풍미의 수정과와 달콤한 홍시시럽에 버무린 쫄깃한 감 말랭이가 특징으로 혼자서도 즐기기 좋은 1인 빙수 메뉴다.

'유자몽 빙수'는 상큼한 자몽과 유자, 트로피칼 젤리가 어우러져 시트러스향이 물씬 풍기는 셔벗(Sherbet) 타입이다. '피지망고 빙수'는 새콤달콤한 복숭아와 망고, 트로피칼 푸딩이 어우러진 열대 디저트 타입, '홍시 빙수'는 아이스홍시와 아이스크림, 달콤한 팥이 조화를 이뤘다.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건강과 피부미용에 좋은 과일 등을 활용해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인 여름 빙수로 고급화된 고객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준비했다"며 "올 여름 무더위는 엔제리너스커피 '웰빙수 5종'을 마시면서 날려버리자"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왼쪽부터 엔제리너스커피 유자몽 빙수, 홍시 빙수, 수정과 빙수

/파리바게뜨 제공

# "사랑과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 파리바게뜨, 가정의 달 맞아 30종 출시

파리바게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케이크, 마들렌, 구움과자 등 총 30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어린이날 선물 고민은 케이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어린이날을 맞아 프랑스 대표 캐릭터 가스파드와 리사를 비롯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벤저스 캐릭터를 케이크 위로 소환했다.

부모님과 스승께 감사를 전달하기 위한 제품으로는 '사랑가득 꽃케이크'와 마들렌 2종과 '구움과자 선물세트'가 제격이다. '사랑가득 꽃케이크'는 화이트스폰지 속에 숨겨진 붉은 하트와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든 풍성한 꽃이 특징인 생크림 케이크다. 미니 마들렌은 귀여운 한입 크기의 마들렌 선물세트로 단콤한 카라멜과 향긋한 홍차의 부드러운 두 가지 맛을 살렸다. 레몬 상큼 마들렌은 맛은 모양도 레몬을 닮은 상큼한 한 입 크기다.

구움과자 선물세트는 바닐라·초코맛의 부드러운 마들렌과 달콤 바삭한 파이, 초콜릿 쿠키에 고소한 견과류로 맛을 더한 쿠키로 구성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 30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파리바게뜨 가정의 달 제품으로 고마운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선달하고 뜻 깊은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붉은 카네이션 닮은 '레드벨벳 롤케이크'

### 뚜레쥬르, 다양한 선물용 제품 출시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5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레드벨벳 롤케이크'를 출시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를 표하기에 적합한 선물로 붉은 색 카네이션의 색을 닮은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레드 컬러에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레드벨벳 롤케이크는 레드시트에 생크림과 크림치즈를 넣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선물용 케이크다. 진한 풍미의 크림치즈와 촉촉한 시트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이밖에 뚜레쥬르는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감사의달 제품들도 함께 판매한다. 고소한 아몬드 크림을 채운 타르트 위에 아몬드와 캐러멜 소스로 토핑한 아몬드 카라멜 타르트와 상큼한 딸기 케이크 위에 카네이션 모양 머랭을 장식한 '감사의 마음 카네이션' 등이다. 전병과 팬케이크 사이에 달콤한 팥 앙금을 샌드한 간식류인 도라이끼로 구성한 전병·도라야끼 세트 등 풍성한 감사의 달 선물을 만날 수 있다.

# 강강술래 푸짐한 '가족 愛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 및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가족愛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어린이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코브라큐브 장난감 4000개를 소진시까지 증정한다. 5일 하루 동안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는 덤 증정 행사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서는 1일부터 15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ml/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ml×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ml×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영양만점세트(찹찹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통등심돈가스720g+모짜렐라돈가스720g)는 40% 할인된 4만3800원, 어버이날 감사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순례양념520g)는 36% 할인된 6만원이다.

# CJ제일제당 "흑삼으로 건강 챙기세요"

CJ제일제당에서 프리미엄급 홍삼인 흑삼을 사용한 '구증구포 한뿌리 흑삼진액'을 추천했다.

'구증구포 한뿌리 흑삼진액'은 100% 흑삼 추출액 제품이다. 흑삼은 한 번만 찌고 말리는 홍삼과 달리 인삼을 아홉 번 찌고 말려 진세노사이드 Rg3·Rg5·Rk1 등 함량을 증대시켰다. 또 항산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 함량이 증대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흑삼 제품이 주류이누던 홍삼시장에서 차별화와 고급화 콘셉트로 명절 세트로만 한정 판매된 제품이다.

#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 최대 20% 할인

한국야쿠르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한국야쿠르트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천연원료 비타민 브이푸드 프로그램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성별·연령별로 3세대에 걸친 온 가족 모두에게 선물이 가능하다. 남성을 위한 '브이푸드 맨프로그램', 여성용 '브이푸드 우먼프로그램', 시니어용 '브이푸드 시니어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브이푸드 틴소년프로그램' 등 4개 제품이 준비됐다.

신라스테이 역삼 뷔페레스토랑 '카페' /신라스테이 제공

# 신라스테이, 가정의 달 뷔페 할인

### 3대 가족 할인, 무제한 음료 등 세가지 프로모션

신라스테이 역삼과 신라스테이 동탄의 뷔페레스토랑 '카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라스테이 역삼 뷔페레스토랑 '카페'에서는 5월 한달 간 주중 저녁 뷔페 가격 인하와 함께 세가지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3대가족 프로모션, 무제한 음료 프로모션, 생일 프로모션 등이다.

3대가족 프로모션은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인 식사 시 추가로 식사하는 1인은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다. 성인 4인 기준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중 저녁 뷔페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할인이 적용된 1인 5만원(세금 포함)에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기존 뷔페 가격에 5000원을 추가하면 글라스 와인·맥주·탄산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음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중, 주말 저녁 뷔페와 브런치 뷔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생일을 맞은 고객이 신라스테이 역삼 카페(Cafe) 레스토랑에서 식사 시 프로모션 와인 한 병이 무료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와인은 프랑스산 '라비에이유 페름'으로 황홀한 체리 빛에 붉은 과일 향과 꽃 향기가 어우러져 더없이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신라스테이 역삼의 뷔페 이용 가격은 세금이 포함 된 주중 브런치 뷔페 3만3000원, 주말 런치뷔페와 디너뷔페 5만9000원이다. 내달 1일부터 주중 디너 뷔페는 5만원에 이용 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 동탄에서는 내달 1일부터 브런치 카페를 '세미뷔페'로 단장해 선보인다. 신선한 샐러드·쌀국수·피자 등 기존의 인기 메뉴는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며 총주방장이 엄선한 추천요리가 메인 요리로 제공된다.

총주방장 추천 요리는 크림 해산물 파스타,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대하 구이 토마토 리조또, 광어 구이 토마토 리조또, 연어 구이 조개 크림 리조또, 마리네이드 삼겹살 구이 등 이다.

런치 세미뷔페 이용 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성인 1만9000원으로 호텔 신라와 동일한 레시피로 조리한 엄선된 메뉴를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다.

또한 5월 한달 간 런치 세미 뷔페 고객에게 성인 스파클링 와인 한잔과 어린이 소프트드링크 한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역삼 뷔페 예약 문의 02-2054-9107~8, 동탄 뷔페 예약 및 문의 031-8036-9107~8

/장은미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우리가 만드는 감동의 순간'

### 쉐라톤 인천 호텔 내달 '디자인 유어 웨딩'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는 당신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2015 웨딩 페어 '디자인 유어 웨딩'을 내달 1일 진행한다.

디자인 유어 웨딩 페어는 '우리가 만드는 감동의 순간'이라는 콘셉트로 실제 예식을 느낄 수 있는 그랜드 볼룸 예식 시연과 함께 야외 웨딩 세트도 마련됐다.

또 품격과 스타일 모두 잡고 싶은 나만의 소중한 결혼식을 위해 국내 최고의 웨딩 업체들만 엄선했다. 새로운 개념의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시슬리 메이크업 클래스, 뉴욕 웨딩의 감성과 정통을 추구하는 엘리케이 브라이덜 뉴욕 드레스 스타일링 클래스, 단순한 상품이 아닌 최고의 선물 세인트 조르디 플라워 박스 클래스, 전통적인 브리티쉬 모드의 고품격과 정통성을 추구하는 캠브리지 수트 스타일링 클래스가 마련돼 예비 신랑 신부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실제 웨딩 메뉴를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기회와 프리미엄 스포츠카의 대림시인 포르쉐를 만나 볼 수 있다.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도 선보인다. 웨딩쇼는 5월 1일 오후 12시와 오후 3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장은미기자 21cindun@

## 5월은 라네즈 선물세트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라네즈 뉴 베이직 2종(건성) 기획 세트(5만7000원대)는 환절기 자극 받은 연약한 피부를 달래줘 넓은 연령층에게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다.

건조하고 들뜬 각질을 정돈하고 피부 정화 작용을 통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촉촉한 사용감의 수분 스킨을 비롯해 피부 정화와 유수분 밸런싱 케어로 부드럽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주는 촉촉한 타입의 중건성 피부용 에멀전으로 구성됐다.

액티브워터 2종 기획세트(6만원대)는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잘 맞는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남성 피부 맞춤 워터인 '액티브 워터'는 고농도의 산소를 통한 피부 활력 충전과 남성 피부 필수 미네랄 3종을 통한 수분 충전으로 생기있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 "카네이션과 함께 센스있는 지갑 선물"

### 닥스액세서리, 트랜디한 고급소재 지갑 선물 제안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맞아 부모님이나 은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다. LF의 닥스액세서리는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지갑을 선물로 제안했다.

이튼'은 어떤 스타일과도 어울리는 잔잔한 무톤의 레자무늬와 견고한 비트염보 선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단단한 소재감을 좋아하는 남성 고객층에게 새로운 느낌을 선사할 수 있다. 네이비, 블랙, 퍼플 3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로얄 갤러리'는 최고급 싸이톤엠보 소재를 사용해 은은한 광택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특피 소재를 좋아하는 남성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지갑의 테두리부분에 2종의 가죽패치를 덧대어 견고함과 세련미를 높였다. 가격은 각 13만8000원이다.

닥스 '패밀리 데이'도 진행한다. 전 품목을 10% 할인한다. 남성 가방·특피 소재의 지갑과 벨트 제품은 2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8215@

## LG, 부모님 위한 화장품 세트

LG생활건강이 가정의 달 5월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좋은 화장품 세트를 추천했다.

후 천기단 화후세트(45만원대)는 비단 원단을 패키지에 사용해 황후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려낸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예단이나 신부 세트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

후 천기단 라인은 산삼·옥주·녹용·진골이 배합된 궁중제방인 '천기비단' 성분을 기본으로, 농축된 영양 성분이 피부 속부터 채워 빛을 차오르게 해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다. 가정의 달 세트는 천기단 라인의 밸런서부터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크림 앰플까지 모든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남성피부를 위한 '보닌 더 스타일 블루' 세트(6만 2000원대)도 있다. 피부정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4종의 허브를 100% 순수 증류법으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어 각종 스트레스로 거칠고 피곤해진 남성 피부를 맑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

# 소중한 분에게 '락포트'의 편안함 선물하세요

## 1~17일 봄·여름 제품 최대 20% 할인 | 아웃렛 매장 최대 60%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 만큼 다양한 야외 활동에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은 신발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에 더 없이 훌륭한 선물이다.

신발을 선택할 때 발의 편안함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발에 적용된 기술력 요소가 중요시되는 추세다. 편안한 슈즈 브랜드 락포트(ROCKPORT)에서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속있는 신발 선물을 제안한다.

락포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매장에서 1~17일 2015 봄·여름 제품을 최대 20% 할인한다(일부 상품 제외).

또 전 아웃렛 매장에서는 1일부터 10일까지 최대 60% 할인된 금액으로 락포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일부 상품 제외). 특히 이벤트 기간 구매 고객에게는 락포트의 다용도 트래블 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락포트의 제품들은 산뜻한 디자인으로 경쾌한 봄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놀랄 만큼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세븐 투 세븐 크로스 스트랩 샌들'은 소가죽 소재의 은은한 광택과 세련된 라인으로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고무 밴드를 메지해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최적화된 핏을 선사한다.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 테크놀러지를 적용해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시키고 보행 시 발의 충격을 흡수해 건강까지 지켜주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세련된 오피스룩 또는 티셔츠와 스키니진으로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연출 가능하다.

트루워크제로 3 우먼 웰트 T-토 슈즈

세븐 투 세븐 크로스 스트랩 샌들(사진 왼쪽), 콕스 투 그레이트니스 저커 플레인 토 슈즈(오른쪽), 트래블 백

화사한 컬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트루워크제로 3 우먼 웰트 T 토 슈즈'는 락포트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 테크놀러지를 적용해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을 자랑하는 캐주얼 슈즈다. EVA소재의 경량 풋베드와 미드솔은 충격 흡수 기능이 탁월해 다리와 발의 피로감을 덜어주며 각기 다른 발에도 최적화된 핏을 제공한다. 또한 고무 소재의 아웃솔에 고무 핏이 더해져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메쉬 소재로 디자인돼 통기성이 우수하고 기벼워 매일 신고 싶은 캐주얼 슈즈이다.

부드러운 천연 가죽을 사용해 우수한 착화감을 선사하는 '콕스 투 그레이트니스 저커 플레인 토 슈즈'는 소가죽의 세련된 무늬와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아디프린 & 아디프린 플러스 테크놀러지를 장착해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증대 시키고 발뒤꿈치 부분은 보행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안정적인 워킹이 가능하다.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느낌을 더한 '콕스 투 그레이트니스 저커 플레인 토슈즈'는 슬랙스 팬츠, 데님 팬츠 등의 캐주얼한 룩을 즐기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액티브플렉스 락스포츠 페프 머드가드'는 다크 브라운 컬러의 고급스러운 소가죽 소재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바디뿐만 아니라 항균성 안감을 사용해 발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주며 소가죽과 면망이 더해져 여름철 쾌적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밑창에는 '아디프린' 기능을 적용해 보행 시 발뒤꿈치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쿠셔닝을 증대 시켰다. '액티브플렉스 락스포츠 페프 머드가드'는 레이스업 캐주얼화로 다양한 스타일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ks[illegible]@metroseoul.co.kr

##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

### 정의숙 전 이사장 등 100여명 참석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이순남)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선회장 겸 의대 학장, 김경주 총동창회장,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미즈메디'앱 출시… 내원 정보 원스톱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원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미즈메디병원은 내원 고객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즈메디(Mizmedi)'를 개발했다. 지난 2013년 마이엔젤(My Angel) 이후 두 번째 출시다. 마이엔젤은 출산일 예측, 태아 그림과 초유차 발달 상황, 임신 시 증상 및 해결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모들 위한 병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병원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즈메디(Mizmedi)'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진료회망일과 의료진에 따라 원하는 대로 예약과 변경, 취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원 정보에서는 진료예약 상황 및 진료실 위치, 실시간 대기 순서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커버팩트' 시즌 4

애경의 홈쇼핑전용 기능성 메이크업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 20's)에서는 '에센스 커버팩트' 시즌 4를 출시했다.

강력한 자외선으로 건조한 봄 환절기와 여름철에 맞춰 보습력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에센스 포켓기술을 통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 에센스를 함유,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간편하게 완성해준다.

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커버팩트 시즌 4는 수분 에센스 함량을 68%까지 높여 땀 배출이 심한 여름에도 피부 겉과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요성분인 수분 에센스는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함유시켰다. 각기 다른 크기의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의 3종으로 배합된 수 히알루론산이 피부 틈을 탱탱하고 촘촘하게 채워준다.

또 손상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노벨상 수상 성분의 EGF 및 메트릭실-3000, 이쿠아 허브, r-PGA 등 총 3가지 특허성분을 처방했다. 비피다 발효 여과물,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등을 함유해 피부 탄력을 도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 더페이스샵 수분드롭 항노화 세럼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수분드롭 항노화 세럼'은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에서 200년 간 전해온 천연 식물 블렌딩 비책을 담은 수분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더페이스샵 R&D이노베이션 센터'의 앞선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자연주의 제품이다. 가을 뿐 아니라 더워지는 계절에도 안티에이징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촉촉하고 가벼운 수분 제형의 수분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개발됐다.

가정의 달을 맞이 '더테라피 수분드롭 항노화 세럼' 본품 및 수분드롭 세럼 미니어처 10ml, 항노화 수분크림 미니어처 10ml를 함께 구성했다. 가격은 2만8000원.

## 롯데칠성음료 상생주스 '제주사랑 감귤사랑'

롯데칠성음료가 제주 감귤재배농가와 손잡고 상생주스 '제주사랑 감귤사랑'을 선보였다.

제주사랑 감귤사랑은 제주의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감귤을 농축해 만든 제품으로 감귤 과즙이 50% 들어 있어 새콤달콤한 제주감귤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 사랑 받는 제주의 이미지를 지역 특산품인 제주감귤에 대한 사랑의 이미지로 연결, 확대시키기 위해 제품명을 '제주사랑 감귤사랑'으로 정했다.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알칼리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 금융권 "가족 추억만들기 걱정 마세요"

### 가정의 달 이벤트 '봇물'

**쿠킹콘서트·캠핑 초청 등 다양한 가족 나들이 행사 소외계층 봉사활동 활발**

금융권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방위적 마케팅을 펼치고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캠핑과 해외여행 등 나들이 지원부터 쇼핑 할인과 금리 우대 상품 출시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계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 유입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 좋은 부모되면 우대금리 제공**

우리은행은 가정에 충실한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는 '좋은 엄마아빠 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융혜택을 주는 '좋은 엄마아빠 패키지' 상품도 출시했다.

카드는 키즈파크나 공연관람 등 가족친화 활동을 위해 결제시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적금은 가족친화 활동을 통해 적립한 '좋은 엄마아빠 카드' 포인트가 캐시백 입금된 금액에 대해 연 1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NH농협은행 직원 봉사단인 'NH행복채움회'는 이날 아동복지시설인 '송추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사랑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활관 안팎의 환경을 정비했다.

BC카드 역시 결연 아동복지센터 어린이를 초대해 '어린이날 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BC카드 임직원들은 사내 자선경매 등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 미술체험 기회와 선물을 전달했다.

**◆테마파크·캠핑 등 나들이 지원**

가족 나들이도 지원된다. 하나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5월 한달 간 하나카드로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본인에 한해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내달 17일까지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 본인 입장권은 1만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동반 3인에게는 40% 할인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은 좋은 엄마아빠 되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에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엄마아빠 패키지' 상품도 출시했다. /우리은행 제공

하나카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테마파크 할인과 여행·쇼핑 혜택까지 제공하는 온 가족을 위한 종합 선물세트 '가정의 달 만원의 써프라이즈' 이벤트를 편다. /하나카드 제공

KB국민카드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 캠핑 초청 이벤트'를 준비했다.

캠핑은 내달 16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발디 캠핑 파크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에게는 바비큐 재료를 비롯해 캠핑에 필요한 텐트, 테이블, 의자 등 각종 장비를 무료 대여한다.

우리카드는 내달 말까지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객에게 본인은 1만5000원, 동반 3인까지는 40% 할인된 가격에 자유이용권을 준다.

이와 함께 홍석천, 최현석, 미카엘 셰프과 함께 하는 '쿠킹콘서트'도 연다. 내달 18일까지 행사에 응모한 후 신용·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115쌍은 추첨을 통해 셰프의 요리를 대접받고 음식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캐시백·포인트적립 쇼핑 혜택**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 구매 등 고객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 쇼핑 혜택도 마련됐다.

현대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쇼핑업종에서 M포인트 혜택을 주는 '50% M포인트 스페셜 쇼핑'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M포인트는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2.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객은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대형할인점에서 결제 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특정업종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5월 말까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요식업종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한 고객은 사용 할 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 국내銀, 해외 실적도 고공행진

**작년 당기순익 52.7%↑ 亞 편중현상 개선 필요**

지난해 국내은행의 실적이 고공행진한 것을 비롯해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점포가 아시아에 몰려있어 진출지역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2014년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과 현지화 지표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해외점포 당기순익은 6억25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2.7% 증가한 수치다.

총 자산도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총 자산은 87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지난 2010년(564억5000만 달러)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인 것.

현지법인·지점·사무소 등 해외점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128개였던 해외점포는 2011년(132개), 2012년(142개), 2013년(152개), 2014년(162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진출지역이 아시아에 몰려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체 해외점포 중 아시아지역이 107개로 전체의 66%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18개), 중국(15개), 홍콩(12개), 일본(10개), 인도(10개) 등이 많았다.

반면 유럽(22개)과 북미(19개)는 각각 13%, 11%에 불과했다.

순익도 중국·홍콩·일본·싱가폴·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이 4억2410만 달러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현지은행 인수, 소액대부업 진출 등 진출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시장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되는 등 한 곳에만 집중하는 해외진출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아시아지역 외에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서린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김세훈
광고문의 02)721-9851~5
독자센터 02)721-9861
2015년 5월 21일 창간(정기간행물 서울특별시 가 00306)

##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 탈바꿈"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號 출범

**지주 중심 유기적 협력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NH농협금융지주에 '김용환 호(號)'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농협금융은 29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김용환(62)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대 지주회장에 이름을 올리는 김 회장은 해외진출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범 농협 시너지 창출 등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올해 농협금융이 계획한 핵심과제인 ▲교육혁신을 통한 인적 경쟁력 확보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 명가로의 도약 작업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범농협카드 활성화와 복합점포 확대, 대표투자 상품 올셋(Allset) 안착 등 3대 시너지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전 농협금융 회장이 세워둔 계획을 마무리짓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해외진출이 꼽혔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회장은 "전통적인 수익원의 한계에 부딪힌 지금의 환경 하에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협중앙회 등과의 상호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 창출이야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는 다만 "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주주인 중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가겠다"며 "앞으로 지주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시너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는 자율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소관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농협금융을 만들겠다"면서 "일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조직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내보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 경기 북부지역 주택시장도 '기지개'

## 1분기 아파트값 0.92상승·신규 분양도 잇따라

#경기도 양주 소재 O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영주(37)씨는 최근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지 1년여 만에 계약에 성공했다. 박 씨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내 집이 팔리자 이제야 시장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북부지역 주택시장이 을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기존주택의 거래가 늘면서 소폭이나마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9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기 북부지역인 고양시의 올 1분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0.92%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 0.66%보다 0.26%포인트 오름폭이 커졌다. 의정부(-0.12→0.50%)와 파주(-0.54→0.32%)는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의 A부동산 관계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맘고생 했던 집주인들이 만족해한다"며 "이쪽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세가와 비슷하다 보니 서울에서 전세 살던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이유로 신규분양시장도 호황이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북부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과는 달리 분양이 주춤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분양이 소진되고, 집값도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공급 물량이 몰리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문을 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에는 3일간 1만6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의정부 구도심이나 서울 북부지역에 전세로 사는 30대 젊은 부부를 겨냥한 분양가·상품구성 등이 주효했다.

김정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870만원으로 저렴한 데다 BRT정류장이 가까워 서울까지 출 퇴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젊은 부부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의정부와 서울 도봉구에서 온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앞에는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 사람들이 40~50명 대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민락지구에서 공급된 푸르지오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최고 3000만원이 붙었다며 수요자들을 유혹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롯데건설이 3년 만에 분양을 재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0월 경의선 야당역 개통이 예정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됐다"며 "3개월 내 완판이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한화건설도 고양 일산신도시 킨텍스 부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공급에 앞서 오픈한 홍보관에는 평일 70~80명, 주말 1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인근 전세 거주자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방문하는 30~40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metroseoul.co.kr

의정부 민락2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제보 ☎02)721-9861

## GS홈쇼핑, 하반기 빛 보나?

### 아쉬운 실적모멘텀

홈쇼핑 대표주인 'GS홈쇼핑'이 소비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으나 하반기부터 서서히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잠정영업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276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1% 감소한 29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3.8% 감소한 260억 4700만원을 기록했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GS홈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295억원)은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며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률 둔화와 판관비 부담 확대 등으로 취급고 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5%포인트 악화된 3.3%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영업실적을 조정하는데 매출액은 기존 전망치 대비 3.1% 상향하나, 영업이익은 7.5% 하향한다"면서 "2분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TV 부진과 모바일 고성장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4.6%포인트 하락했다"면서 "실적 개선은 TV 성장률 반등이 관건이다.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관측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TV쇼핑 부진으로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추정치를 하회했다"면서 "TV쇼핑과 인터넷쇼핑 등의 취급고는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모바일쇼핑의 마케팅 비용과 같은 조기 비용이 실적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올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성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홈쇼핑주는 올해 하반기에 나 모바일쇼핑 고성장에 힘입어 긍정적인 실적을 올릴 것"이라며 "GS홈쇼핑을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진단했다.

여영상 연구원도 "모바일쇼핑 부문은 여전히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취급고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104% 성장한 모바일쇼핑의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취급고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는 하반기부터 외형성장에 더해 마진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렬 연구원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돋보일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안현진기자 ...

SK증권

ELS 및 DLS 3종 공모

- 제1509회 ELS KOSPI200지수 기초, 원금 99% 보장
- 제1510회 ELS KOSPI200지수 & HSCEI 지수
- 제197회 DLS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 및 북해산 브렌트 원유 선물

1599-8245

행복파트너 SK증권

"원금 99% 보장" SK증권은 30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하고, 30일 하루 동안 파생결합증권(DLS) 1종을 공모한다. /SK증권 제공

## '부동산앱 주의보'… 허위매물에 비싼 중개료까지

방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 앱을 이용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업체들 역시 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전·월세 거래를 대상으로 '2030 세대들을 위한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는 100개가 넘는 부동산 앱이 나와 있다. 이중 '직방'이 점유율 70%를 넘기며 대표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이용자 수만 700만 명에 달한다. 누적 등록 매물은 70만 건이 넘는다. 2012년 초 출시 이후 이달 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6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후발 주자로 나선 '다방'은 2013년 출시 후 누적 사용자가 23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시세보다 낮은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 많아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매물에 대해 문의하면 중개업체 측은 해당 매물은 이미 팔렸다면서 다른 매물을 소개하기 일쑤다. 때문에 부동산 앱이 공인중개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임모 씨(30)는 "특정 방의 사진을 보고 전화해도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그 방은 지금 나갔고 다른 좋은 방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며 "그냥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앱은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큰 이점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 중개료가 일반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거주 중인 김 모 씨(28)는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계약하는 데 쥐 앞에서는 1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앱을 통하니 공인중개사에게 16만원은 줘야 했다"며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비쌌다"고 말했다.

부동산 앱에는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일반인들끼리 하는 직거래도 있다. 그러나 개인 매물인 것처럼 속이는 중개상인들도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윤정원기자 ...

# LG전자, 1분기 영업익 3052억

### HE·VC사업본부는 적자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13조9944억원, 연결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 분기 대비 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했다.

사업본부별 실적에서 HE사업본부는 매출액 4조4367억원, 영업적자 62억원을 기록했다.

HE사업본부는 비수기 매출감소와 신흥시장 통화약세 지속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MC사업본부는 매출액 3조5965억원, 영업이익 729억원을 기록했다.

MC사업본부는 스마트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0년 이래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MC사업본부의 매출액은 스마트폰 G3의 글로벌 판매와 북미지역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H&A사업본부는 매출액 4조644억원, 영업이익 2293억원을 기록했다.

VC사업본부는 매출액 3826억원, 영업적자 24억원을 기록했다. VC사업본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3% 증가했지만 전기차용 부품, 전장 부품 등 차량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선행 R&D 투자 확대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eun716@

# 삼성·LG TV '속빈 강정'

### 글로벌 '톱2', 1분기 나란히 적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사업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양사의 TV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과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2분기 전망도 밝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양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 CE 부문은 14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LG전자 역시 HE사업본부가 62억원 영업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계절적 비수기와 유럽·신흥시장의 환율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 제품비 상승 등을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TV 세트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LCD가 제조가격에 38%정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에도 TV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 수요가 전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엔저를 앞세운 일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불안 요소다. 최근 3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40%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일본 TV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TV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2분기 수익개선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SUHD TV와 LG전자 올레드 TV

정영락 삼성전자 상무는 "시장 상황별 판가 조정, 라인업 재편 등 적시에 대응하고 있다"며 "새로 선보인 프리미엄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울트라HD TV,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LG 'G4' 소개하는 조준호 사장 29일 미국 뉴욕 원월드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G4 공개행사서 조준호 LG전자 MC 사업본부장(사장, 사진)이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4를 직접 선보이고 있다. 이날 미국 행사에는 약 200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몰려 열기가 넘쳤다. /LG전자 제공

# 갤럭시S6·S6 엣지, 물량 부족이라니

### 애플러스리서치 발표
### "2주만에 판매량 급감"

"갤럭시S6 초기반응 좋다. 7000만대 팔리는 자체파이팅 것(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사장)" "갤럭시S6는 초기라 예단이 어렵지만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갤럭시S5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이진열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초기 시장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예상보다 판매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S를 처음 내놓은 이후 매년 새로운 갤럭시S 시리즈를 선보였다. 덕분에 5년만에 삼성전자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올려놓았지만 지난해 선보인 갤럭시S5의 흥행 실패로 쓴잔을 마셨다. 이어 갤럭시S6·S6 엣지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전작의 판매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위기다.

29일 시장 조사전문업체 애플러스리서치(한컨설팅(다라점과 판매점 수치만 적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6·S6엣지의 판매량은 2주차를 지나면서 절반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 갤럭시S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애플러스리서치(한컨설팅)이 집계하는 주간 휴대폰 판매량 톱10에 올라온 수치를 바탕으로 갤럭시S3와 갤럭시S5, 갤럭시S6, 아이폰6 등의 성적을 비교해봤다.

지난 2012년 6월 판매를 시작해 2년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6000만대를 돌파한 갤럭시S3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폰6, 갤럭시S5, 갤럭시S6 시리즈가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갤럭시S3(3G)는 1주차(2012년 6월 21~27일)에 2만5000대를 판매했지만 2주차(2012년 6월 28일~7월 4일)에는 34만7000대를 팔아치웠다.

2위 아이폰6 시리즈는 1주차(2014년 10월 30일~11월 5일) 13만4000대에서 2주차(2014년 11월 6~12일)에는 6만9000대를 기록했다. 3위 갤럭시S5는 1주차(2014년 4월 3~9일)에 4만200대, 2주차(2014년 4월 10~16일)에는 6만2000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판매율을 기록한 갤럭시S6 시리즈는 1주차(2015년 4월 9~15일) 5만9000대에서 2주차(2015년 4월 16~22일) 3만5000대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결국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후 제품 물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갤럭시S3와 갤럭시S5의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발효 이전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양성운기자 ysw@

# 삼성 '갤럭시 탭A' 국내 출시

### 'S펜' 탑재해 편리

삼성전자가 29일 S펜을 탑재한 새로운 태블릿 갤럭시 탭A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노트 필기, 스케치 등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 S펜 기능을 지원해 학업이나 업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비스를 연동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대학생의 경우 강의 시간 중 클라우드 메모 서비스인 원노트를 이용해 필기와 강의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직장인은 PC로 작성하던 문서를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원드라이브를 매개로 어디서든 쉽게 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 화면과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이드싱크 기능, TV와 손쉽게 연결해 태블릿 화면을 TV에 띄우는 퀵 커넥트, 어린이용 사용자경험(UX)과 인기 어린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키즈 모드 기능 등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S펜'을 탑재한 태블릿 '갤럭시 탭A'를 29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탭A'는 S펜 등 편지작 관적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 제품이다.

7.5㎜ 두께에 487g의 무게를 지녀 휴대성도 강화했다. 출고가는 S펜을 탑재한 LTE 모델은 48만4000원, 와이파이 모델은 39만9000원, S펜 없이 나온 와이파이 모델은 34만9000원이다. /정은미기자

# 한국타이어, 마케팅 전문가 서호성 전무 영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 서호성(사진) 전무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전무는 한국타이어 마케팅본부에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이끌게 된다.

서 전무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전략, 마케팅, 경영관리 조직을 10년 이상 이끌며 경험을 쌓았다. 현대라이프와 HMC투자증권의 전사 기획을 담당하며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 계열사의 조직 안정화와 변화를 주도했다.

현대카드 마케팅본부장 재직 시 현대카드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향후 서 전무는 지금까지 쌓아온 전략·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의 도약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충렬기자 roman@

# 재규어랜드로버 '팔면 그만' 영업… 신뢰도 추락

**사고발생에도 AS 묵묵부답**
**美선 단 2건 신고에도 리콜**

**수입자 배짱 버티기에**
**국토부 감독 미흡 지적**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화재 차량(왼쪽)과 현장 /출처=보배드림

재규어랜드로버가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고 발생과 리콜 문제로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에선 사고 발생 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의 안일한 대처와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가 문제로 지목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랜드로버 이보크 2014년형 운전자 이성준(가명)씨는 최근 주행 중 갑자기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가 떨어지고 D드라이브 표시가 깜박깜박하며 기어봉이 잠겨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이씨는 "갓길에 급정거 후 시동을 켰더니 'Gear box Fault' 경고등이 떠서 긴급출동 견인을 보냈다"며 "대차요청 4일 후 렌트카 받아도 찜찜했고 아내와 아기가 타는 차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없게 해달라고 AS센터에 정중히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주일 후 수리완료 통보를 받아 차량을 인수했고, 4일 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40km 주행 중 똑같은 현상으로 갓길에 급정거했다.

그는 "당시에 만약 집사람과 딸이 운전 중이었다고 생각하면 겁이 난다. 더 이상 이 차를 가족들이 타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며 "차량의 안전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AS센터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에는 2014년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신차를 구입한 김성훈(가명)씨가 해당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을 당했다.

사고를 접수하자 랜드로버 콜센터 직원은 화재 건의 경우 견인차 서비스가 유상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보험사 견인차로 디스커버리를 AS센터에 보낼 수 있었다. 그때까지 랜드로버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딜러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됐다.

김씨는 "천일모터스에서 신차교환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며 "다시 똑같은 차량을 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천일에서 빠르게 사후처리해주는 부분을 믿고 교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재규어랜드로버의 대규모 리콜이 계속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지난달 중국중앙(CC)TV가 이보크의 기어박스 결함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후 이보크 3만6000여대 리콜을 결정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국내 사고의 경우 해외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사측은 우선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미국에서는 단 2건의 신고에도 리콜을 단행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니 국내지든 해외자든 업체들이 먼저 리콜에 나설 리가 만무하다. 끝까지 버티다가 과실이 드러나면 선심 쓰듯 무상수리 캠페인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 삼성물산 1분기 매출 뚝… 김신 리더십 '도마'

**자원·화학 '올인' 효과 없어**
**경영전략 수정 목소리 높아**

삼성물산 상사부문을 이끌고 있는 김신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원개발과 화학사업에 올인했지만 올 1분기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부문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겠다던 김 대표의 경영방침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조직을 개편했다. 화학소재산업부 내 합성수지 파트와 정밀소재팩트를 신설한 것이다. 화학사업 관련 부문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전 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합성수지와 정밀소재 분야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화학사업 부문의 1분기 매출액은 75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9억원이 감소했다. 18.4% 떨어진 수치다. 또 관련된 생활산업 부문 매출액도 4687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3.8% 하락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가 공을 들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실적부진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년간 캐나다 온타리오 등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41억원을 투자했다. 또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670억원 투자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 발전단지개발 사업은 올해 초 270MW 풍력발전단지를 완공,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분기 자원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778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9%(1282억원) 감소했다.

/송정훈기자 s.hi@

# SM3 Z.E,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1위

**부산 151건·포항 8대 접수**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부산시와 포항시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에서 SM3 Z.E가 부산 151대, 포항 8대로 단일차종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올해 1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부산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총 345대의 공모 접수가 이뤄졌다. 이 중 르노삼성차의 SM3 Z.E. 접수건수가 151대으로 43.7%의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SM3 Z.E.는 접수건수 2위 차종(기아 쏘울 91건)과 60대의 격차를 보였다.

올해 2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포항시에서도 지난 21일까지 SM3 Z.E.가 단일차종 최다 접수인 8대를 기록했다.

부산시의 SM3 Z.E 선전에는 부산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 급증과 르노삼성의 전폭적인 구매 지원이 주효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르노삼성은 공모 당첨 고객에 일반 보조금 2000만원(환경부 1500만원, 부산시 500만원)외에 20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추가 제공했다.

/이정필기자 roman@

# "2017년까지 일자리 2500개 만든다"

**현대차그룹·정몽구재단**
**'H-온드림 오디션 4기' 시상**

현대차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H-온드림 오디션 4기 선정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H-온드림 오디션 4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H-온드림 오디션 4기 최종 선발팀 시상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수료한 전국 340여개 팀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심사와 예선·본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창업 교육 과정을 받게 될 인큐베이팅(Incubating) 그룹 15개 팀과 ▲2011년~2013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선정 창업팀 중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디벨로핑(Developing) 그룹 15개 팀 등 총 30개 팀을 선발했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함께 ▲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 '기프트카'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사회적기업 '이지무브', '연송생활' 등을 활용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 육성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500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

# OCI, 태양광시장 침체… 국내 사업 손 떼나

## 올 1분기 당기순익 130억 · 전년比 60% 감소
## 자회사 'OCI파워' 지분 매각 철수 분석 솔솔

| OCI | 2011 | 2012 | 2013 | 2014 |
|---|---|---|---|---|
| 영업이익 | 1조1179억 | 1547억 | 1062억 | 459억 |
| 영업이익률(%) | 26.14 | 4.81 | 3.95 | 1.46 |

OCI가 태양광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1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개선은 없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OCI의 1분기 매출액은 77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30억원으로 60% 줄었다. 영업이익은 2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OCI는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자회사 'OCI파워'의 지분을 매각하는 행보를 보여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온다.

OCI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2011년 매출액 4조2758억원을 기록하며 26.14%까지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12년 4.81%, 2013년에는 3.59%까지 떨어졌다. NICE신용평가는 작년 11월 OCI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수익성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OCI의 주력 분야인 태양광 사업 부문의 불황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책 지원으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태양광 목표 설치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2014년도 목표치 달성률은 75.7%로 올해 역시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CI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CI파워는 최근 오디엠태양광발전, OCI남부태양광발전, OCI서울태양광발전 등의 지분 전량을 농협에 매각했다. 총 매각대금은 약 95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4일 OCI파워는 유상감자를 실시해 발행주식의 85.63%를 소각하기도 했다. OCI의 자본금은 기존 98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83억원은 고스란히 OCI로 돌아갔다.

이우현 OCI 사장은 1분기 실적발표에서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유입되는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OCI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발전 철수설에 대해 "자회사인 OCI파워가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매각해야 모기업인 OCI가 기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이를 또 다른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회수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수한 투자금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는 정해진 바 없으나 충남 등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기사제보 02)721-9861

## 우체국·KT, IoT 기반 서비스 맞손

### 온·오프라인 정보망 결합 신규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

120년 전부터 함께 했던 KT와 우정사업본부가 다시 힘을 합쳤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KT는 29일 업무협약(MOU)을 하고 두 기관의 온·오프라인 정보망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 개발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KT는 온라인 정보망과 우체국 집배원들의 생생한 지역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를 창출하고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우체국 택배 위치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KT와 핀테크 등 선진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온·오프라인 상품판매와 모바일 상품권 제작과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인접 부동산의 공동 활용, 창조경제 아이디어 공모, 공익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첨단 IoT 우편관제가 이뤄지면 우체국 택배 최적 경로 설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김준호(오른쪽) 우정사업본부장과 KT 이문환 경영기획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편물 도착시각의 정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기관의 물류서비스 연계로 전국 KT지사나 지점을 통한 택배 접수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130년 동안 통신·물류 역사를 이끌어온 아날로그 상징인 우체국과 디지털 상징인 KT가 만났다"며 "두 기관의 융합서비스로 선진 물류·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 이통3사, G4 출시··· 공시지원금 최대 33만원

이동통신3사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G4를 출시하고 요금제에 따라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LTE 100 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26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KT는 순 완전무한 99요금제를 기준으로 지원금 32만7000원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음성 Ultimate 무한자유 124"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 최대 금액인 33만원을 제공한다.

이통3사 모두 공시 단말기 지원금의 15% 이내의 추가할인을 받으면 각각 52만6000원, 44만9000원, 44만50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 "글로벌 IoT 선도기업으로 제 2도약"

### 이상철 LGU+ 부회장 신사옥 입주식서 선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용산 시대를 맞이해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9일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에서 입주식을 열고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업계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 2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전국망, VoLTE 서비스 상용화, 구글TV 등 세계 최초 서비스를 선보이며 비디오 LTE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면서 "용산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이동통신업계의 유일한 글로벌 IoT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구본무 LG 회장,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문경기자 hm1158@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LG 경영진이 입주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 SKT '이상하자' 캠페인 통신의 변화·혁신 앞장

SK텔레콤이 대한민국 통신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에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를 담은 신규 광고 캠페인 '이상하자'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캠페인 '이상하자'의 의미는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상(異常)한 시도를 통해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以上)'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가장 '이상(理想)'적인 통신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9일 서울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열린 SK텔레콤 '이상하자' 광고 캠페인 제작발표회에서 남상철 SK텔레콤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 두번째)과 박해일, 고수, 설현 등 출연배우들이 함께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이 일반적인 광고 캠페인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가상의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전했을 때 모두가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생각과 물건이 등장하는 론칭편을 시작으로 이상하자는 슬로건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부합시킨 광고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광고 캠페인 '이상하자'의 메인 모델은 배우 박해일, 고수,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 등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배우들이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우리 시대의 부모님에게
가슴 가득, 눈부신 감동을!

악극

내 생에 가장 찬란했던 나의...

# 봄날은 간다~

**2015.5.1(금)~6.21(일) 디큐브아트센터**

**양금석 최주봉 정승호 윤문식 최선자 이윤표 김장섭**

SBS 1588-5212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예스24, 옥션티켓

# 자회사 주식배당 332% 챙긴 씨티은행

### 씨티캐피탈 직원 감축시키며 이득 챙겨가

최근 해외 송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씨티은행이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배당금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자회사인 씨티캐피탈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억원대에 그쳤고 직원의 3분의 1을 감축했다. 노사 간 상생은커녕 자회사 직원들을 희생시키가며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신 금융회사인 씨티캐피탈은 2013년 346명에 달했던 직원 중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160명 이상을 감축했다. 씨티캐피탈은 지난해 4억7300만원의 부진한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3년 순이익은 259억원이었다. 희망퇴직자 160명 이상에게 지급된 퇴직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순이익은 급격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씨티캐피탈은 이같이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금으로 929억원을 사용했다. 씨티캐피탈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 1주당 배당금은 1만6600원이다. 332%에 달하는 배당률이다. 순이익의 196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만큼 자산이 빠져나갔다. 씨티캐피탈은 2013년에도 주주배당금으로 307억원을 사용했다. 역시 순이익을 초과해 주주배당금을 지급했다.

씨티캐피탈의 배당금을 비롯한 경영 일체는 대주주인 한국씨티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씨티은행이 자신에게 주어질 주주배당금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과도한 주식 배당을 한 기준에 대해서 "과잉 유동성 해소와 수익성 제고, 그리고 적정한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원 3분의 1을 희망퇴직이란 명분으로 퇴사시킨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156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금(609억원)과 경영자문비용(1600억원)으로 본사에 지급했다. 씨티캐피탈에서 받은 배당금은 이를 메꾸는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씨티그룹에서는 한국씨티캐피탈의 매각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매각 전 씨티캐피탈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자본 빼내기와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씨티캐피탈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결산공시에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캐피탈 지분을 100%라는 내용과 배당금이 적혀있다 /한국씨티캐피탈 홈페이지

/[illegible] 기자

## 정부 네팔에 '귀국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가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국적기 1편을 30일 네팔 노선에 투입한다. 국적기는 보잉777기로 261석이 마련돼 있다. 30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15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민을 태우고 오전 10시15분 네팔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4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29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우리 국적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과 네팔 간 정기편은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투입되는 국적기를 통해 카트만두에 체류 중인 태광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조기귀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적기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은 대한항공 국내콜센터와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으로 연락하거나 현지 공항 외부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국적기를 통해 비상식량, 식수, 보호 등 구호물품도 함께 수송해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illegible] 기자

"성완종 특사 단서 나와야 수사권 발동" 특교인 [illegible]은 22일 노무현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국회 [illegible]에 출석해 "[illegible]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합뉴스

미군 사격중지 포천 미군 사격장 피해주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이태원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는 경기도 포천 영평·승진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가 개최했다. /연합뉴스

##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해 약관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대로라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배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수협은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빨리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 '백 투 1905'… 美·日의 역사 역주행

###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 – 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

19세기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가 국가 목표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국제관계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서양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앞장 서 도와 준 결과였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도쿄로 보내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밀약을 맺게 했다.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얼마 후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주장에 동의했다. 일주일 뒤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패전국 일본을 다시 동북아의 패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 서 도왔다. '대중국 동맹'이었지만 명분은 역시 '동북아 평화'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밀약이 아닌 공개적인 '미-일 공동비전 성명' 형식이었다.

미·일 공동비전은 이번에도 '탈아입구'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군비 확장과 대외 팽창에만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를 방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비전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곳곳에 있다. 두 정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 진출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송세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전후 70년 맞아 회담하는 오바마-아베**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볼티모어에 주방위군 배치**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가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돼 폭동이 일어난 볼티모어 시내에 28일(현지시간)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 "김정은, 다음달 러시아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다음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평양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로베르토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는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달 김정은 제1비서가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콜린 대사는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으로부터 김 제1비서가 이미 초청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양에 상주하는 러시아 외교관이 이와 관련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이 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6일 김 제1비서의 참석과 관련해 "북한과 실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최근 김 제1비서의 참석을 잇달아 확인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특사 자격으로 보낼 방침이다.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불참이 결정되면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정윤아기자 yoona1@

## 네팔 20대 남성 80시간만에 '기적의 생환'

네팔 강진 이후 무너진 건물에 갇혀 80시간을 버틴 20대 남성이 28일(현지시간) 구조됐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겼다는 점에서 기적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외신에 따르면 구조된 남성은 리쉬 카날이라는 이름의 28세 남성이다. 카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무너진 7층 아파트 건물에서 구조됐다. 프랑스 구조대는 구조 당시 카날의 소리를 듣고 잔해더미를 헤치고 그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날을 구조하는 데는 6시간 이상이 걸렸다. 카날은 무너진 기둥에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구조대가 전동 도구를 이용해 기둥을 잘라냈다. 카날은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카날이 생존해 있던 방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5일째인 29일 현재 사망자는 5057명, 부상자는 10915명으로 늘었다. 네팔 당국은 카트만두 외곽과 산간지대로 수색·구조 작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네팔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구조 및 구호 인력과 물자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상당수 산간 지역에는 산사태 등으로 접근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3시간30분 정도 떨어진 북동부 신두팔촉에서는 지진 이후 산사태가 이어져 1182명이 숨지고 56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몰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에서 구출되는 남성. /[illegible] 이제관

/정윤아기자 yoona1@

# metro●entertainment

## star bag

### 레인 中 음원 차트 1위

배우 **구혜선**이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 '레인'이 중국 최대 포털 QQ 음원사이트 1위에 올랐다. '레인'은 지난 26일~29일 현재까지 유행지수차트에서 1위를 지지했다.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76만 8087 스트리밍 수도 기록 중이다. 특히 발매 6년 만의 1위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 글로리데이 로 스크린 데뷔

그룹 엑소 멤버 **수호**가 영화 '글로리데이'(감독 최정열)에 캐스팅됐다. '글로리데이'는 스무 살 네 친구의 운명을 뒤흔드는 하룻밤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주연 캐스팅에만 4개월이 걸렸다. 수호는 이야기의 구심점이자 친구들의 달래비가 되는 상우 역을 맡아 첫 스크린 주연에 도전한다. 다음 달 1일 크랭크인한다.

### 암살 속 냉혈 카리스마

배우 **이정재**가 영화 '암살' 티저 영상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를 자아내며 시선을 압도했다. 영상에서 이정재는 중절모와 수염으로 1930년대 정취를 풍긴다. "이 작전은 우리 셋만 아는 건가요?"라는 말로 심상치 않은 작전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정재 외에도 전지현·하정우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개봉 예정.

### 유쾌한 곡 '남자라면' 발표

밴드 **버즈**가 새 싱글 '남자라면'을 29일 발표했다. 소속사 산타뮤직은 "'남자라면'은 버즈가 그동안 해왔던 애절한 발라드나 진지한 모던 록 장르가 아닌 붐바람처럼 살랑거리는 가볍고 유쾌한 곡"이라며 "버즈는 의도적으로 쉽고 친근한 가사를 선택했다. 기존곡과 다른 이기지기한 사운드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데뷔 5년차 위기? 우리와 먼 이야기"

## 미니 8집 '조커 이즈 얼라이브'로 돌아온 달샤벳

걸그룹 달샤벳(세리·아영·지율·우희·가은·수빈)이 1년 3개월만에 여덟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로 돌아왔다. 이번 앨범은 막내 수빈이 국내 걸그룹 최초로 앨범 전체를 프로듀싱했다는 점과 오랜 공백 끝에 발표한 새 음반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 공백기가 길어진 이유는 수빈은 교통사고로, 우희는 기흉으로 병원 신세를 졌기 때문.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달샤벳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지친 기색은 커녕 "바빠서 정말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 시련은 또 다른 기회**

이번 앨범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타이틀곡 '조커'의 일부 가사가 욕설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달샤벳은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고 재심의에 통과해 KBS2 '뮤직뱅크'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전 울었어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완전 놀랐거죠. 가사, 안무, 의상을 다 수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버전이 되더군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영)

"듣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희)

전곡을 프로듀싱한 수빈에겐 무척 속상한 일이었을 터.

"1년 3개월이나 쉬었으니까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단 각오로 준비했는데, 섹시한 부분만 부각되니 무척 속상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볼까 걱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프로듀싱했지만 언니들 의견도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여섯 명이 함께 프로듀싱한 앨범이죠." (수빈)

달샤벳 'JOKER IS ALIVE' 앨범 재킷.

긴 공백 끝에 발표한 새 음반
수빈이 전곡 프로듀싱 맡아

걸그룹 포화로 활동에 조바심
쉰 만큼 활동도 오래하고 싶어

"일단 자랑스러워요. 막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또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면 더 고맙죠." (지율)

**◆ '5년차 위기'는 우리와 먼 얘기**

난관에 봉착해도 서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에선 자매애가 느껴졌다. 가은은 입맛을 잃은 수빈이 걱정 돼 옆에서 밥을 떠먹여 줄 정도로 친자매처럼 지낸다고 했다. 데뷔 이래 지난 5년 동안 이사 한 번 가지 않고 같은 숙소에서 줄곧 같이 산 덕분일까. 아이돌 가수에게 데뷔 5년차는 위기의 시기로 통하지만 달샤벳에겐 먼 얘기다.

"저희 데뷔할 때도 걸그룹이 많았지만 요즘엔 정말 많더라고요. 포화 상태라는 말이 딱이죠. 쉬는 동안 다른 그룹들 활동하는 것 지켜보면서 조바심도 났어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인지 요즘엔 작은 것들에도 감동을 많이 받아요. 눈물은 말라졌지만 내면은 강해졌어요." (아영)

"얼마전 홍대에서 처음으로 게릴라 공연을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팬들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저희를 잘 모르시던 분들도 지나가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해요." (가은)

지난 5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달샤벳.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

"'너네 이제 떠야지', '1위 해야지' 란 말을 들으면 속상했어요. 저희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활동했거든요. 그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생각뿐이죠." (우희)

"'조커' 활동은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 대중도 저희를 보면서 즐거웠으면 해요.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오래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세리)

/김지only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화합은 커녕… 축구하다 집단 난투극

경남도민체전에서 나온 선수들간 패싸움

공 잃어버린 추신수

펜스에 쏙 끼어버린 박병호의 장타

## 스포츠 주간 해프닝

시즌 막바지로 치닫는 유럽 축구 리그들이 잇따르는 폭력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축구 경기중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민체전 축구 준결승에서 진주시와 거제시 선수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진주시 한 선수가 거제시 선수를 태클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진주시 선수는 공을 차려다가 거제시 선수의 가슴을 찼고, 고의로 가슴을 찼다며 거제시 선수단이 몰려나와 항의하면서 양쪽 선수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재 5명을 입건했다"며 "추가 입건 여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를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햇볕에 공 잃어버린 추신수

극심한 슬럼프로 20타수 무안타를 기록중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나선 추신수는 2-0으로 앞선 7회말 수비에서 지니 지아보벨라의 우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를 쫓아갔으나 잡지 못했다.

열심히 타구를 쫓던 추신수는 햇볕에 타구 방향을 잃은 탓인지 포구를 포기했고, 타구는 우선상 안쪽에 떨어진 다음 곧바로 펜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가 됐다. 레인저스 경기 전담 해설가인 톰 그리브는 추신수가 우측 파울 라인 쪽 펜스를 의식한 나머지 타구를 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펜스와 추신수와의 거리는 멀었다고 지적했다.

### 펜스에 끼어버린 박병호 장타

2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넥센 박병호는 2-4로 뒤지던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롯데 선발 이상화의 초구를 공략했다.

잘 맞은 타구는 쭉쭉뻗어 펜스 중앙을 강타했다. 하지만 공은 튀어나오지않고 펜스 사이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수비를 하던 이두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병호의 안타는 인정 2루타가 됐다. 이후 박병호는 유한준의 2루수 땅볼 때 3루까지 진루한 뒤 김민성의 우익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았다. 이날 넥센은 타선이 활발하게 터지며 롯데를 8-4로 꺾고 4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정원준기자 mikeo@metroseoul.co.kr

## 류현진 두 번째 불펜 피칭 '굿'

### 25개 직구만 "어깨 상태 걱정안해"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어깨 부상 이후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불펜에서 포수를 앉혀놓고 25개의 공을 던졌다.

돈 매팅리 감독, 릭 허니컷 투수코치, 스탠 콘티 트레이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깨 부상 이후 두 번째 불펜 피칭을 가진 류현진은 첫 번째 불펜 피칭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구를 섞지 않고 직구만 던졌다. 이날 류현진의 불펜 피칭에는 앤드루 프리드먼 운영부문 사장까지 참관했다.

류현진은 불펜 피칭을 마친 뒤 어깨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매카시의 시즌 아웃이 재활 페이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이 없는 동안 3선발 역할을 하던 브랜던 매카시가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되면서 다저스는 선발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재활 페이스라면 류현진의 그라운드 복귀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 /김도훈기자

유럽 최상위 프랑스 루브르호텔그룹 (Louvre Hotels Group)

#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선착순 분양!

GOLDEN TULIP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5년간 실투자금 대비

**12% 확정수익률 지급**

**최적의 호텔입지**
제주 국제공항 차량 8분, 제주의 강남, 노형동 최고자리

**풍부한 관광시설**
신라면세점, 바오젠거리, 쇼핑타운, 카지노 등 쇼핑과 관광 수요 흡수

**상위 클래스 브랜드**
유럽 최고의 호텔체인 루브르그룹의 4성급 골든튤립 브랜드

**수익금 관리·지급**
국내 최초 신탁사가 직접 수익금 관리 및 지급

신라면세점 (도보 1분)

바오젠거리 (도보 5분)

한라산

제주의 골든블록

## 미국 호텔과 차원이 다른 유럽 최고의 호텔 브랜드

유럽 최고의 호텔그룹 루브르와
중국 최대의 호텔기업 진장이 만나 완성되는
골든튤립 제주 호텔의 새로운 기준

##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만의 PREMIUM 6

### 호텔수익금 안심지급제도란?

###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5년간 투자안전성 확보

신탁사 → 투자자

은행사

### 기존 제주 호텔투자

은행사 → 투자자

※신탁사는 수익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4성급 브랜드 골든튤립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4성급 GOLDEN TULIP Upscale (제주노형호텔)

Kyriad M idscale

청약계좌 ▶ 청약금 100만원

우리은행 1005-002-542904

예 금 주 (주)생보부동산신탁

# 마약같은 한화 야구 '마리화나'

뉴스룸에서
김민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올해 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 흥행을 위해서는 '막내구단' KT 위즈의 적당한 승률과 한화 이글스의 돌풍, 삼성 라이온즈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칼럼을 쓴 기억이 난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현재 절반 이상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을 영입하고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린 한화는 현재 5할 승률을 넘기며 프로야구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SK 와이번스와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스윕'을 기록한 한화는 시즌 첫 3연승과 함께 개막 이후 최고 승률(0.545·12승10패)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매 경기 치열한 명승부를 펼치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3점차 이내 접전만 16경기나 된다. 팬들은 이기든 지든 짜릿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화의 야구 스타일을 '마리화나(마리한화)'라고 부른다. 중독성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마약야구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한화 돌풍의 중심에는 역시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이 있다. 최근 김 감독은 전에 없던 선수들과 스킨십을 자주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한화 마운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권혁의 경우 힘겨운 기색을 보이면 마운드까지 직접 올라가 그의 볼을 어루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린다. 그러면 권혁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시 씽씽투를 던지며 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한다.

박정진에게는 "박정진의 투구에 때로웠다" "권혁과 박정진은 한화의 쌍두마차다. 이들 덕에 5, 6회까지 팽팽하게 승부를 펼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등 칭찬을 연발하며 기를 살려 주려고 노력한다. 우리 나이로 불혹인 박정진은 14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했다. 최근 4경기에서는 8⅓이닝 연속 실점하지 않았고, 삼진 8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단 한 개만 내줬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밀리지 않는 끈끈한 근성, '벌떼야구' 등 한화의 야구스타일이 매력적이다.

1위 삼성은 지난 주말 롯데 자이언츠에게 3연패를 당했다. 28일 LG 트윈스에도 져 시즌 첫 4연패를 기록했다. 삼성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삼성의 패가 늘어날수록 프로야구의 순위 싸움은 치열해지고 흥미는 높아진다.

문제는 KT다. 아직 1군 전력이 아닌 KT는 올해 10구단으로 프로야구에 합류해 3승 21패를 기록중이다. 참혹할 정도다. 트레이드든 뭐든 용병교체 카드를 활용하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를 바란다.

# 장동민씨, 참 뻔뻔하시네요

기자 수첩
김지민
<문화스포츠부 기자>

개그맨 장동민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개그 트리오 옹달샘(장동민·유상무·유세윤)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팟캐스트 방송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내뱉었던 막말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장동민은 "재미만 생각하다보니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됐고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리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재미를 위한 농담이라고 하기엔 그 수위가 심각했다. 스타일리스트의 정자를 꺼내 구운 후 그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내고 싶다는 발언, 군대 후임을 죽인 뒤 비무장지대에 묻었다는 험악한 농담, 빵점짜리으로 조대한 여자에게 환각제를 먹인 후 수간을 재위 허용하겠다는 상황극까지 어느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재미있자고 뱉은 말이 죽자고 달려드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장동민의 독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철저히 자신보다 약자를 향한 공격이고 마니아층만 개그 코드로 취급하기엔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지만 그 때까지 장동민이 취한 행동은 MBC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뿐이었다. 그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오줌 먹는 들쥐'에 대해 얘기하던 중 "삼풍백화점에서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가 오줌을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들쥐의) 창시자"라고 희화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생존자 A씨로부터 모욕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하차했다. 그는 A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손 편지를 써서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대중에게 질타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행동처럼 해석됐기 때문이다.

장동민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 하차 여부에 대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제작진의 뜻에 전적으로 맡긴다.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구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과거 인터넷 방송 막말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과 비교하면 장동민의 대처 방식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

시청자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제작진에게도 사과하고 프로그램을 떠나는 것이 옳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폭언을 일삼은 개그맨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가 과연 있어나 될까. 고개 숙인 사과로 그치기엔 그의 잘못이 너무 크다.

## Gang-nam Plastic Surgery Search and 'Confiscation Requested by China.'

The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major plastic surgeries in Gang-nam. This request was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epartment of food and medicine started to investigate ten well known plastic surgery hospitals in Seocho gu on the twenty third of this month. They confiscated the treatment records and summoned the related officials to further investigate. Each of these hospitals is run by at least ten doctors. And one of these hospitals is the largest plastic surgery hospital in the country. These hospitals gave high commission to the plastic surgery brokers for gathering Chinese patients. The commissions paid for this process were exempted from the account book. Also, it has been found that they did not pay their taxes. Korea plastic surgery is becoming popular among the Chinese these days, but the side effects are emerging after the intervention of brokers. It was told that the Yowooku (Chinese tourists) are turning their backs on the Korean plastic surgery because numerous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during the surgery.

## 중국 요청에 강남 성형외과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들을 수사 중이다. 그나마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유명 성형외과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성형외과는 모두 10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이 중 한 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다.

이들은 전문 성형 브로커에 수술비의 절반에 가까운 고액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수수료는 병원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다.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성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성형외과에서 유커(중국 관광객)들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중국 내 반한 감정 또한 일고 있다고 전해졌다.

/번역: 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과
Chris Kim(김준)

##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a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냈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생계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인사

■ 화재보험협회
△이사 승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교육홍보팀장 김근미 △팀장 이동 ▷고객서비스팀장 장우현 ▷특수진단팀장 안갑철 △지부장 이동 ▷울산지부장 장영원 ▷경기강원지부장 김광선 ▷부산경남지부장 박광현 ▷인천지부장 배철호 ▷대전충청지부장 박균용 ▷광주호남지부장 이주상 △부지부장 이동 ▷울산지부 부지부장 김경학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이종선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이진혁 ▷대전충청지부 부지부장 홍계표
◇동두천시 △4급 ▷자치행정국장 홍선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5급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훈 ▷총무과장 한찬희 ▷공보관 신과장 김호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영철 ▷여성청소년과장 이숙조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최복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박정석 ▷세무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조희성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송기분 ▷관광과장 이규린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이춘식 ▷공원녹지과장 고현진 ▷도로과장 윤판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정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농업축산위생과장 직무대리 장두환
■ TBC
△부장 승진 ▷편성기획팀 김승규 ▷개발마케팅팀 최수원 ▷경영기술팀 김병석 ▷정책실 의팀 윤혜성 △차장 승진 ▷보도팀 이지연 ▷광고문화사업팀 김규진 △전보 ▷콘텐츠사업팀장 김태우

### 부고

▲ 장한원씨 별세, 경윤(금감원 거시감독국 팀장)씨 부친상 = 29일 오전 (시30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8시 ☎ 02-3779-1526
▲ 서석현(전 한전기공 사장)씨 별세, 혁원(강릉 동인병원 치과과장)·형숙(상명대 교수)·화숙(전 한국일보 선임기자)·우현(한전KPS 과장)씨 부친상, 안덕재(전인씨엔건축사사무소 대표)·조병혜(서울시 시의감사)·윤주진씨 빙부상, 최진희(주부)씨 시부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월 1일 ☎ 02-3410-6916

# "한미, 유통업 손 떼라" 의약품유통協, 집단시위

## 한미약품 "회사 문 닫으라는것, 철회해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8일 한미약품본사 앞에서 관계사인 온라인팜(대표 남궁광)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이 관계사인 온라인팜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했고, 할값 몰아주기와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을 급신장시키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유통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온라인팜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비슷하다.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 결국 영업사원 360명의 생계문제로 온라인몰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협회 회원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한미약품은 의약품 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유통업계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홍보실 박찬하 이사는 "한미약품은 제약회사 본연의 역할인 신약 R&D에 집중하기 위해 2012년 온라인팜을 설립했다. 약국 유통과 판매 조직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별도 독립시킨 것은 R&D를 통해 글로벌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결단이었다. 360명이 아니라 200명의 영업사원들은 약국영업망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협회에서 요구하는 도매업 허가를 반납하라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거다. 모든 제약사들은 모두 자사제품을 약국에 유통시키기 위해 도매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유통업권을 침해 했다는 것도 한미제품 중 70%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매협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나머지 30%인되는 개품을 온라인몰로 유통하고 있는 현실인데 도협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다. HMP몰 역시 한미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14개 업체가 도매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 있다. 상위도매업체는 전국판매망을 가지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는 결국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를 해야 한다. 결국 유통협이 싸워야 할 곳은 한미가 아니라 외국제약사다. 국내 제약사한테는 10%상회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외국사는 6%정도의 수수료만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국내 제약업계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유통협 황치엽 회장은 "한미약품은 온라인팜을 관계사로 설립해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무자비적으로 의약품유통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한 의약품유통업체는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한미약품은 제약기업 본연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유통시장까지 장악하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제약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제약사가 영세한 의약품유통업계를 침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라면서 "한미약품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의약품 유통업권 침해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팜 홈페이지.

한편 의약품유통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던 온라인팜은 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남궁광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용자 중심 인터넷 상거래 모델을 개발한 한미약품의 온라인팜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남 대표는 또 "한미약품은 기존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 유통 및 판매 조직을 전담할 온라인팜을 설립했다. 또한 제약회사 본연의 신약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팜은 HMP몰에 입점해 있는 14개의 도매업체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판매망이 없었던 도매업체가 HMP몰을 통해 사업확장의 기회를얻기도 했다. 일선 약국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팜스넷, 더샵 등이 HMP몰 보다 먼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팜은 앞으로 의약품유통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의약품유통협회가 온라인팜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도매업 허가 철회와 HMP몰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치선기자 ch sunb@

득량역 추억의 코스프레 축제" 코레일은 노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남 보성 득량역에서 7080년대를 테마로 한 '추억의 코스프레 축제'를 연다. /코레일 제공

## 교육부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했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총현기자 hon@

기사제보=02)721-9861

## 신세계 홍보실의 구밀복검(口蜜腹劍)

기자 수첩

정은미 <생활유통부 기자>

당나라 현종때 '이임보'라는 간신(奸臣)이 있었다. 그는 재상으로 있으며 황제의 비위만을 맞추고 신하의 충언이나 백성들의 간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당은 급속히 쇠퇴시켰다.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親切)하나 마음속은 음흉(陰凶)한 것을 비유한 고사성어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이임보'를 두고 생긴 말이다.

최근 신세계그룹 홍보실의 정용진 부회장과 회사에 대한 행동들은 간신으로 불린 '이임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본지는 지난 7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2012년부터 주도면밀하게 인건비 감축을 노린 신인사제를 추진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장하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경영전략실 인사팀에서는 2012년 중점 추진 업무로 '인시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같은 인사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이마트의 이러한 인사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신인사제 추진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신세계 홍보실에서는 본지의 이같은 보도를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아는 것을 우려했는지 이 기사가 실린 메트로신문을 강탈해 가기에 이른다. 지난 8일 신세계 본사 인근에서 홍보실의 30대 청년과 메트로 신문을 배포하던 도우미인 70대 노인이 몸싸움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신세계 홍보실에서는 이번 강탈 사건에 대해 "광고협찬을 뜯으려고 악의적 기사를 썼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며 이마트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신인사제도에 대한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신세계 홍보실의 잘못된 언론관과 삐뚤어진 충성심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강탈 사건 이후 신세계 홍보실에서는 본지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는 것은 물론 출입기자에게 보도 자료 발송도 중단했다. 또 이마트 노조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반인권행위 진정 접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 요청에 대해서도 홍보실에서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고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언론탄압 행위다.

연산군이 신하들을 마구 죽여 간언을 하는 이가 없게 됐을 때 목숨 걸고 극간을 한 이는 내시 김처선이었다. 그는 연산군이 쏜 화살을 맞고 다리가 잘리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홍보실의 업무가 회사의 좋은 일만 홍보하는 것은 아닐게다. 쓴소리에 대해서는 홍보실은 일선에 나서 회사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회사의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홍보실은 정 부회장과 임직원의 눈치를 보고 쓴소리는 은폐하면서 회사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 "내츄럴엔도텍 '100%진품' 주장은 근거없다"

### 소비자원, 檢에 증거 제출 ‖ 내주 식약처 발표 촉각

백수오의 진품여부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의 공방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백수오 진위 공방은 주장과 반박에 이어 재반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주)내츄럴엔도텍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백수오는 100%진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근거없다"고 재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주요일간지 전면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임을 강조하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 재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식약처가 (주)내츄럴엔도텍 수거시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발표를 늦추자고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주)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하정철 팀장은 반박문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험방법 결과에 이견이 없었고, 식약처(2015.02.)의 (주)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대한 수거검사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증만을 하는 회사에 조사를 맡긴 것이 맞는가 에 대해서도 문제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이므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분석회사 등에서는 시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번째 농림부 IPET 시험법이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에 적합하지 않다 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이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주)내츄럴엔도텍의 자발적 회수, 폐기 의사표현 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 팀장은 "(주)내츄럴엔도텍은 원과 진행된 1차 간담회(2015.04.08)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원물)를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주)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 폐기 대신 언론에 그 결과를 보도하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음날 보내왔고(2015.04.10.) 실제로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2015.04.13.)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료 수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주)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주)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 수거는 검찰의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全) 과정에 (주)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하였으며 수거 이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하였고 수거 모든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문제 없음을 확신했다.

이상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재반박을 한 소비자원은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증거 자료로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는 법 위반으로 인한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석윤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애니멀 프렌즈로 송원진과 전소민 씨를 위촉했다. /순천시청 제공

# 법정에 마주 선 이마트 노·사 날선 대립

이마트 측이 이마트 노동조합이 배단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이마트 노조 측이 PPT(파워포인트)로 변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열린 이 재판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전 PPT 사용 여부를 우리에게도 고지했나"며 이마트 노조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 PPT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에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PPT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PT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 측 변호인은 "PPT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이마트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PPT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투다 변론도 못하고 끝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현업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hong@

# 이마트도 고객정보 장사 논란

### YMCA "정보 팔아넘긴 경품대행사와 공동 책임"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가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마트는 경품 대행사에 장소만 대여해줬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는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선 총 4차례에 걸쳐 '쉐보레 스파크 21대의 공짜행운을 잡으세요'라는 자동차 경품행사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311만2000여개다.

경품 대행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보험사에 넘겨 총 66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고객정보 장사라는 비판에 휩싸이자 당시 이마트 측은 "무상으로 장소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정보를 넘긴 대행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 YMCA는 이마트가 경품 행사 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기 위한 미끼였다며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도 이마트가 응모권에 ▲보험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적시 ▲이마트가 경품행사와 무관함을 명시 ▲경품행사로 인한 대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종(법무법인 다음)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필수인 경품응모 행사를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며 "고객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없는 작은 표시는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경품사기 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 측도 첫 재판에서 이 점을 주요 근거로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2011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3자 제공 등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변호사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다. 이마트가 경품 행사의 성격을 모른 채 장소만 대여했을지라도 미연에 이 같은 피해요소를 차단하지 못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것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의해 고객들을 기망에 빠뜨리면 안 된다"며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미란기자 [illegible]